

환율 1430원 돌파에 외환당국 1년반 만에 개입

무역갈등 여파 장중 1434원까지 뛰어
1425.8원 마감...5개월여 만에 최고치

원·달러 환율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다시 한번 격화하면서 1430원대로 뛰었다가 외환당국 구두개입이 나오며 1420원대 중반으로 마감했다.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4.8원 오른 1425.8원을 기록했다.

지난 4월 29일(주간 거래 종가 1437.3원) 이후 5개월 반 만에 최고치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0원 오른 1430.0원으로 출발해 장 초반 1434.0원까지 올랐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 결론이 늦어지는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 확대 우려에 위협피피 심리가 고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최근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다음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맞대응에 나섰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매매도 이날 환율에 영향을 미쳤다. 외국인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8204억원을 순매도했다.

외환당국은 이날 환율이 1420원대 후반에서 주로 움직이다가 오후 한때 1430원을 다시 넘어서자 구두개입에 나섰다.

기재부와 한은의 공동 구두개입은 중동의 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1400원 근처까지 오른 지난해 4월 중순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이날 개장 직후에는 당시 가격보다 100



원 가량 낮은 1330원대에서 거래가 체결됐다 실수로 확인돼 취소되는 일도 있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49% 내린 98.862 수준이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9.11원으로,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929.64원)보다 9.47원 상승했다. 엔·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67% 내린 151.822엔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13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1430원을 넘나들자 외환당국은 구두개입에 나섰다. 연합뉴스

미-중 무역 갈등에 희토류·배터리 관련주 급등

두산에너지빌리티, 가스터빈 美 첫 수출에 52주 신고가
코스피 0.7% 내린 3580대 마감...코스닥은 소폭 상승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재점화된 가운데 중국이 수출 통제 강화를 발표한 희토류와 배터리 관련 종목이 급등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희토류 테마주인 유니온머티리얼이 전 거래일 대비 28.77% 오른 22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유니온머티리얼은 직전 거래일인 지난 10일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 성안머티리얼스(29.93%), 동국알앤에스(16.91%), 유니온(20.90%) 등 다른 희토류 테마주도 크게 올랐다. 특히 중국이 희토류와 리튬이온 배터리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포스코퓨처엠(7.79%) 등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주가도 올랐다.

앞서 중국은 지난 9일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미국은 지난 10일 중국에 100% 추가 관세

세를 물리겠다고 맞대응했다.

이에 중국은 이날 다음달 8일부터 리튬이온 배터리와 인조다이아몬드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 대해 증권가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와 다음 달 제2차 '관세 휴전' 만료를 앞두고 양국이 무역 담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것으로 진단했다.

박수현 KB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관세처럼 중국이 제시하는 희토류 수출 통제 등 압박 카드들은 협상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며 "양국 힘겨루기가 계속될 수 있으나 중국은 미국 반도체, 군수 장비, 전자 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희토류 통제 유예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두산에너지빌리티가 가스터

빈을 미국에 처음 수출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달성했다. 특히 전 거래일보다 4.16% 오른 7만7600원에 거래를 마치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주가는 장중 7만85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이날 미국 빅테크(거대 기술기업)에 380MW(메가와트)급 가스터빈 2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공급은 내년 말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두산에너지빌리티가 해외 시장에 가스터빈을 공급하는 첫 사례다.

이번 해외 수주의 배경에는 인공지능(AI) 시대 도래에 따른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폭증이 있다는 게 두산에너지빌리티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장 초반 90p 급락한 낙폭을 20p 대로 크게 줄이며 전장보다 26.05p(0.72%) 내린 3584.55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00p(0.12%) 오른 860.49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거래를 시작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840.28까지 하락했으나 소폭 반등에 성공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

쌀 예상 초과량 16만5000t 중 10만t 시장격리

정부, 소비자 할인폭 20kg당 7000원으로 확대

정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25년산 예상 초과량 16만5000t 중 10만t을 시장격리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산 쌀 수급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3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2일 발표한 2025년산 쌀 예상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만1000t(0.3%) 감소한 357만4000t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쌀 예상 과잉 물량이 16만5000t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밥할 소비 감소와 가공용 쌀 소비 증가 등을 고려하면 쌀 예상 수요량은 340만9000t이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올해 민간 재고 부족으로 이월되는 구곡 물량이 평년보다 적고 최근 일조량이 부족해 깨씨무늬병 등 병충해로 쌀 최종 생산량이 예상보다 줄어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초과량 중 10만t을 우선 격리하고 쌀 최종 생산량과 소비량을 보고 상황에 맞는 수급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10만t에는 지난 8월 말부터 정부가 산지 유통업체에 대여 방식으로 공급한 5만5000t의 반납 물량이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쌀 할인행사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할인 폭도 20kg당 5000원에서 7000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송훈 기자 photo25@

‘광주~안양’ ‘광주~안성’
금호고속, 신규노선 운행

금호고속은 오는 15일부터 유스퀘어에서 경기도 안양시를, 20일부터 경기도 안성시를 운행하는 노선을 각각 신규 운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안양 노선은 하루 3회 운행하며 운행 시간은 광주 출발 주중은 오전 7시 20분, 오후 1시30분, 오후 7시. 주말에는 오전 6시50분, 오후 1시10분, 오후 6시 30분이다.

안양 출발 주중은 오전 8시10분, 오후 1시40분, 오후 7시40분. 주말에는 오전 7시40분, 낮 12시50분, 오후 7시40분이며 소요시간은 4시간5분, 수원을 경유해 운행한다.

안성~광주 노선은 하루 2회 운행하며 광주 출발 오전 9시, 오후 3시이고 안성 출발 오전 9시10분, 오후 3시다. 안성중양대를 경유해 운행한다.

요금은 광주~안양 4만1900원, 광주~안성 3만원이며, 고속버스 터미나나 티머니 Go 어플을 통해 예약 가능하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중단됐던 노선을 재개하고, 신규 노선을 확대함으로써 광주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수도권을 잇는 광역 교통망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남·광주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중 교통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GICON “AI로 만드는 솜품”
내달 10일까지 콘텐츠 공모

(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지역 창작 생태계 확신을 위해 ‘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과 청년, 지역 기업 종사자들이 AI 도구를 활용해 손쉽게 콘텐츠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디지털 창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로 광주 시민을 비롯해 광주 소재 대학 재학생, 지역 기업(기관) 재직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제는 ‘AI 솜품 영상’으로,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창작이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광주 온에어스테이션 이메일(ottstudio062@gmail.com)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송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공인디자인전문회사

회사 홍보를 고민하십니까?

다큐디자인으로 오십시오

다큐디자인은

- 사보, 사사, 회보, 지명원 등 회사 홍보를 위한 기획, 제작 전문 회사입니다
- 기획부터 취재, 원고작성, 사진촬영, 출판까지 One-stop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일을 하실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 사보, 사사, 단체사, 회보, 지명원 등 기록물 간행을 원하시는 분
- 자서전, 회고록, 시집, 수필집, 소설, 사진집 등 단행본 출판을 원하시는 분



**DOCUdesign**
다큐디자인 **DOCU**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25번길 6(금동) T. 062)529-7107 M. 010. 8345. 0103